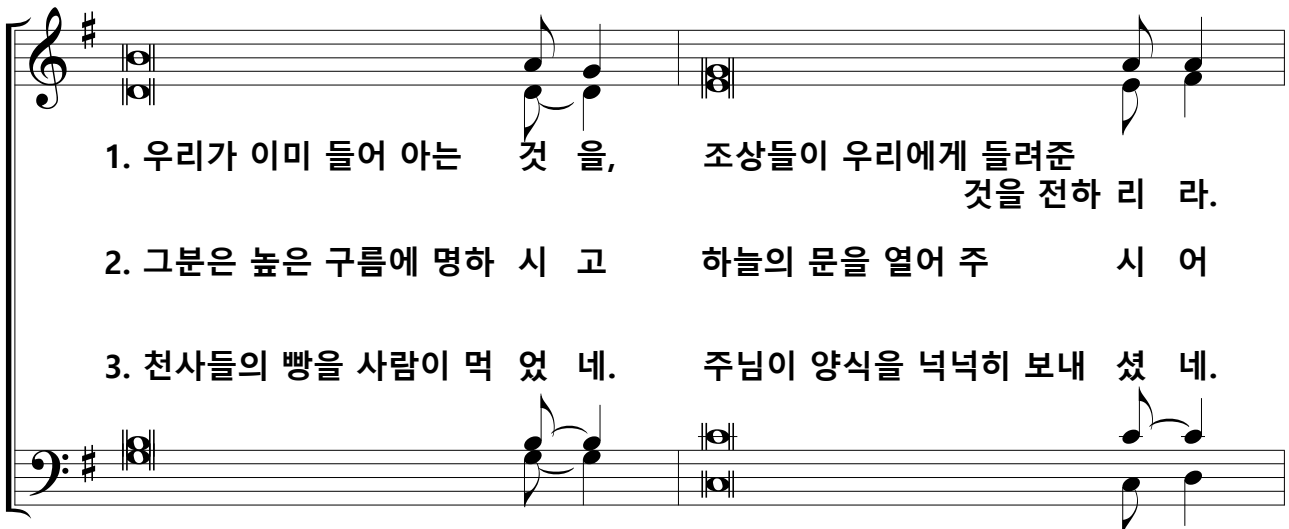


연중 제 18 주일 화답송 [나해]

시편78(77), 3과 4ㄴㄹ. 23-24. 25와 54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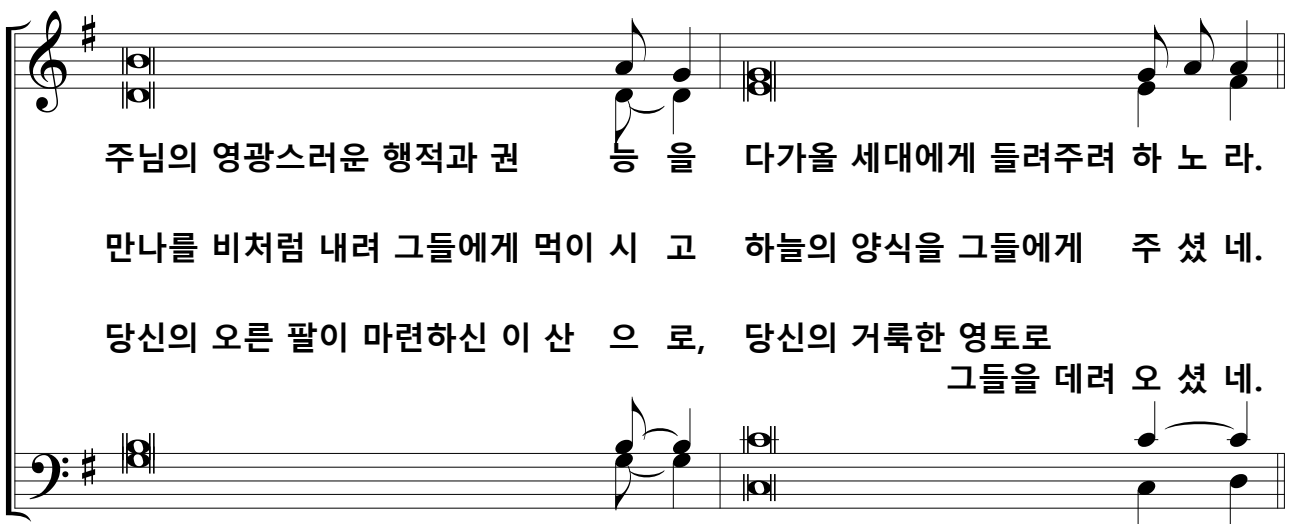
(후렴) 주 님 은 하 늘 의 양 식 을 주 셧 네.



1. 우리가 이미 들어 아는 것 을, 조상들이 우리에게 들려준
것을 전하 리 라.

2. 그분은 높은 구름에 명하 시 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 시 어

3. 천사들의 빵을 사람이 먹 었 네. 주님이 양식을 넉넉히 보내 셧 네.



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권 능 을 다가올 세대에게 들려주려 하 노 라.

만나를 비처럼 내려 그들에게 먹이 시 고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 셧 네.

당신의 오른 팔이 마련하신 이 산 으 로, 당신의 거룩한 영토로
그들을 데려 오 셧 네.

연중 제 18 주일 알렐루야 [나해]

알 렐 루 - 야 알 렐 루 - 야

사람은 빵만으로 살지
않 - 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
모든 말씀으로 산 - 다.